

<대구 공기관 대표 선임 '말만 무성'>

잇단 무산.."불투명성·뿌리깊은 불신 때문"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적임자 찾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대구시가 최근 산하 기관·단체 대표를 새로 뽑는 과정에서 마땅한 인사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달로 임기가 끝나는 배상민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임 공모를 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사장 추천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공모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보름간 이뤄질 예정이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추천위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재공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시민 프로축구 구단인 대구FC 대표이사 선임과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대구FC는 지난달 7~16일 공모를 거쳐 같은 달 2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선임 대표이사 인선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FC 이사회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하는 대구문화재단은 지난 3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특정 인사에게 점수를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대표이사 선임이 미뤄진 이후 두 달여 동안 공전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이화연 전 대구은행장이 거듭 고사의 뜻을 밝힘에 따라 시는 이 전 행장을 포함, 대구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을 대상으로 최종 의사 타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시 측은 이와 관련, 늦어도 내주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이처럼 인사 문제로 진통을 겪는 것을 놓고 그동안의 관행과 연결해 보는 해석도 있다.

인재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뿌리깊은 불신이 이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선 과정에서 '이미 누가 낙점돼 있다더라', '정치권 유력 인사가 누구를 밀고 있다더라', '그 자리는 이쪽 인사가 맡아야 한다' 등의 확인 안 된 소문이 무성한 것도 인선 절차가 신뢰받지 못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

대구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인사를 뽑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5-07 11:06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2005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